

[종합]

“파산위기 전남무역 문달아라”

중계무역·수산물 수입 등 150억 손실 경남 등 타지역도 관련 무역회사 폐쇄

전남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을 수출하기 위해 설립된 전남무역이 중계 무역에 나서 큰 손실을 입는가 하면, 오히려 농수산물을 수입하거나 일부 직원의 업무처리 부실로 임대료, 월령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파산 위기에 몰리고 있다.

또 경남 등 다른 광역단체도 자치 단체가 출자한 전남무역과 유사한 형태의 농수축산물 수출 조식을 폐쇄해 전남무역을 차체에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16일 전남도와 전남무역에 따르면 전남무역은 2000년 6월부터 최근까지 덴마크 등 유럽산 돼지고기를 수입한 뒤 이를 다시 일본에 수출하는 중계무역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일본 측 수입 업체 3곳이 연회차기 하락 등에 따른 경영악화로 수입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면서 전남무역은 19억1천800만원(한화 149억원)에 이르는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전남무역은 현재 피해액의 최고 85%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수출보험

에 기대를 걸고 있으나 수출보험공사에서 보상범위를 어떻게 확장할 지 판단이 어려운 데다 수입결제 채무액도 122억원에 달해 수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남무역은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중국 다렌 삼비디움(양란) 수출 전진기지’를 임대하는 과정에서 전남무역 중국지사 직원이 3억 5천만원에 이르는 임대료를 은행계좌로 이체하지 않고 개인에게 수표로 직접 지불함으로써 횡령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전남무역은 또 지난 2005년에는 냉동조기 16만 5천달러어치를 수입했으며, 참깨와 바지락 등 상당량의 농수산물을 해외에서 사들여 물의를 빚었다.

이와 함께 지난 2005년 5월 병어를 시중가격보다 비싸게 매입해 참고에

보관했다가 보관업자가 허락없이 병어를 처분하는 바람에 고스란히 손실을 입었으며, 1997년 독일로부터 3억 3천만원에 이르는 유리온실 기자재를 수입했다가 활용방안을 찾지 못해 지난해 6월 2천500만원의 할감에 매각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당초 설립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는커녕 막대한 손실을 초래해 파산위기에 처한 전남무역을 아예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한편, 전남무역은 전남지역 농수축산물의 수출 및 국내판매 촉진 등을 목적으로 지난 1996년 자본금 30억 7천100만원으로 출범했다.

전남도는 자본금의 30%인 10억원을 출자했다. /총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아내 품에 안겨

동해 오징어잡이배 ‘천왕호’ 사무장이었던 남북 어부 최욱일씨가 31년만에 16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마침내 귀국, 부인 양정자씨의 포옹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남북어부 ‘31년만의 귀환’

천왕호 선원 최욱일씨 北 탈출 보름만에

북한을 탈출해 중국 선양(瀋陽) 한국총영사관의 보호를 받은 남북어부 최욱일(67)씨가 16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31년만에 귀환했다. 최씨의 한국행은 지난 5일 선양 한국총영사관에서 신병을 인수

한 지 12일 만에 이뤄졌다. 교통사고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는 최씨는 그간 한국총영사관 구내에 머물던 숙소에서 머물러왔으며 지난 11일에는 한국행을 위한 사전수속 절차로 현지 공안당국에

출석해 탈출 경위 등에 관해 조사를 받았다.

오징어잡이 어선 천왕호 선원 출신으로 1975년 8월 동해에서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나포돼 억류됐던 최씨는 31년 만인 구랍 25일 북중 접경지역을 거쳐 중국으로 탈북했다.

최씨는 이날 인천공항에서 가족들과 재회한 자리에서 “보위부 감시가 심했고 (북한에서) 어렵게 살았다”며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국, 경제자유지수 36위

작년보다 9계단 상승… 홍콩 1위·北 ‘꼴찌’

세계화와 더불어 경제적 자유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민족들의 소득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세계적 규모의 빈부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고 웰스트리트저널(WSJ) 아시아 판이 16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자사와 헤리티지재단이 공동으로 실시한 ‘2007년 세계 경제자유 지수’ 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테러 공포와 고유가, 중국 국력 신장에 대한 미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세계 전반적으로는 개인의 자유 신장에 대

한 인류의 걸망을 반영하는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 세계 157개국을 대상으로 관찰한 경제자유 지수에서 홍콩과 싱가포르 및 호주가 각각 1~3위를 차지한데 이어 미국은 4위에 올랐다. 한국은 올해 36위로, 지난해 45위에 비해 9계단 상승했으나 일본(18위), 대만(26위) 등 아시아 주요국가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순위가 낮게 나타났다.

북한은 맨 꼴찌인 157위, 쿠바는 156위, 이란은 150위였다. /연합뉴스

국가·독립유공자 보상금

올해 6~10% 인상

올해부터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에 대한 보상금이 6.1~10.1% 인상되는 등 이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시행령과 독립유공자예우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광주도시공사 사업정보 사전유출

서구 세하·매월동 택지개발 계획 도면 부동산 업자에 알려져 땅값 5배 올라

광주시 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 서구 세하·매월동 택지개발 사업의 계획 도면이 부동산 업자들에게 유출되면서 땅값이 수배나 오르는 등 개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가 기승을 부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광주시나 도시공사는 도면과 정보 유출의 책임 소재에 대해 “잘 모르겠다”며 회피하고 있다.

현재 농촌지역인 세하동 일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갑작스런 투기 열풍이 불면서 평당 20만원 안팎의 땅값이 100만원 가까이 뛴 상태다. 이 택지개발 사업은 오는 2월 말 공사를 거쳐 3~4월께 택지개발예정지구 고시를 앞두고 있었다.

광주시는 도시공사와 협의 단계 이후 도면이나 사전 정보가 유출된 것

으로 추정하면서도 정보 유출 책임과 관련해서는 향후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임우진 행정부시장은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투기가 우려되고 있지만 사업을 중단할 만큼은 아닌 것으로 판단돼 당초 예정대로 행정절차는 진행되리라 본다”며 “도면 유출 관련해서는 도시공사가 자체조사에 착수했고 택지개발예정지구 고시되면 더 이상 토지거래 및 건축허가도 불가능한 것이 분명해 평당 20만원 안팎의 땅값이 100만원 가까이 뛴 상태다. 이 택지개발 사업은 오는 2월 말 공사를 거쳐 3~4월께 택지개발예정지구 고시를 앞두고 있었다.

광주시는 도시공사와 협의 단계 이후 도면이나 사전 정보가 유출된 것

전에 유출된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각종 개발정보 유출 경위와 해당 지역 토지 거래 현황 분석 등을 통해 정보 유출자와 기획 부동산 개입 실체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정몽구회장 6년 구형

대검 중수부는 16일 회삿돈 693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횡령 및 배임 범행은 범죄가 중대하고 폐해가 크다. 법과 원칙을 일시 포기하는 게 국가 경제에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 엄정히 단죄해 기업경쟁이 좀 더 투명해져야 한다”며 징역 6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빛의만평

- 김중두



진짜 못말리는 관계다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입법안

광주시, 재의 요구 철회

광주시가 의원 입법으로 제정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시의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했다가 철회했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 집행부로 이송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 다시 시의회 본회의에서 심의해 줄 것을 박광태 광주시장 명의로 요구했다가 15일 이를 철회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의원 입법 사항에 대해 시가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마치 시의 의회가 또다시 갈등을 빚는 것 처럼 보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 재의를 철회했다”면서 “집행부 입장에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의회와 협의를 통해 충분히 해

결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는 등 의회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안으로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균형발전 조례는 기본계획 수립과 투자심사, 예산편성 등에 자치구간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등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며 산하 위원회에서 자치구간 경제조정을 심의·자문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시는 당초 재의 요구안에서 “위원회에서 자치구 경제조정을 심의·자문하거나 단체장의 업무 자문을 위한 위원회에 시의원을 당연직으로 포함시킨 것은 관련 법을 벗어난 사항이다”고 주장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일보 광고접수안내
구인, 구직, 운전, 모피, 초상, 영인, 모일, 사물, 증류, 매일, 부동산, 매매, 임대, 전세, 부동산
* 직통: (062)227-9600
* FAX: 227-9500

정정 공고
2007년 1월 9일자 광주지방법원 경제2계 정고중 다량과 같이 정정공고합니다.
2006년 1월 17일
광주지방법원 서법3과 이 인 철

회사해산공고
2006년 9월 29일 담회사에 임시 주주총회 결의로 회사를 해산하기로 하였으므로 담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거나 해산에 이의가 있는 분은 본 공고일로부터(2007년 1월 17일) 2007년 3월 17일까지 채권신고 또는 이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1월 17일
주식회사 대신종합물류
순천시 서면 안곡리 572
광동대표: 최인정 대 식

공인중개사
2월 1일 첫집도 개강
전국수석 배출 전국최다합격자 배출
광주교시학원
본원 ☎ 227-8003
첨단점 ☎ 971-0002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7·9급 일반행정직
7·9급 교육행정직
공인중개사
광주·전남 수강생 만족도 가장 높은 학원

산행안내
1월 18일(목)
▲가도파산악회 전남 해남군 계곡면 출석산과 기학산 1월18일(목) 08시 광주여출발 T.017-602-2800, 011-691-8238
▲광주한국산악회 경남 창원 동곡산(중암산)부곡(하어문) 1월18일(목) 07시 영주체육관(문예회관)광주출발 ※예약비 T.011-601-2279
▲광주국산악회 전남 영주군 고산면 안수산 1월18일(목) 08시 광주여출발 T.011-9601-8258, 011-441-8845
1월 20일(토)
▲거북이테마산악회 한라산 눈꽃산행 1박2일 1월20일(토) 06시40분 현대백화점(영주체육관)영주출발 ※cafe.daum.net/uk2380 T.011-624-2181, 223-3651
▲해항도요산악회 경남 사천 외동산 1월20일(토) 07시30분 광주여(문예회관)후문 상유출발 T.019-392-4277
▲신미투산악회 해안권 비무남-캄보디아 관광 5박6일 1월20일(토)04시 광주출발 T.011-612-1770
▲광주거북이산악회 제주도 한라산 눈꽃산행(1박2일) 1월20일(토) 07시 무등경기장 출발 http://cafe.daum.net/kwjit T.017-602-0377, 011-602-3263
1월 21일(일)
▲보리마산악회 남해 호수산 1월21일(일) 08시 광주여(우암동)문예회관 상유출발 T.011-645-7796
▲한울산악회 함양 삼봉산-금대산 1월21일(일) 08시 국제호텔(전남) 광주출발 ※비이비카 패환관산악회(여약,보안가입) T.017-610-0359, 011-635-9629
▲빛고을외모를 구해 오산 등주리봉 1월21일(일) 07시20분 영주체육관(광주여

전남산악회 금산 진악산 1월21일(일) 08시 광주여출발 T.010-9776-3630, 011-642-5197
▲다음카메(사)오산요수산악회 고성 연꽃산 1월21일(일) 08시 전라북도 영광군 신리면 출발 T.011-620-2002
1월 23일(화)
▲헬빙민우회 함천 가야산 1월23일(화) 08시 영주체육관(문예회관)후문 상유출발 ※다음카메:헬빙산우회 T.011-603-0059, 010-9000-6920
▲영주산악회 한라산 눈꽃산행 1박2일 1월21일(일) 07시 영주체육관(문예회관)후문 상유출발 ※선착순예약취소, 회차일: T.011-648-2208
1월 24일(수)
▲청록산악회 전남산도교 남광산 1월24일(수) 08시 광주여(광주)문예회관 상유출발 ※다음카메:광주호남산악회 T.010-6246-7231, 011-605-5034
1월 25일(목)
▲광주한국산악회 제주도 한라산 눈꽃산행(1박2일) 1월25일(목) 06시40분 현대백화점(영주체육관)영주출발 ※cafe.daum.net/uk2380 T.011-624-2181, 223-3651

9급 교정직 소방직
7·9급 교육행정직 공인중개사
광주·전남 수강생 만족도 가장 높은 학원
광주 메가고시학원
http://www.gmeda.co.kr
■상담전화: (062)226-5050 ■위치: 전남여고 후문 맞은편